

# 개미들, 국민연금 따라하기... 배당+주가 두토끼 기회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313곳 달해 56곳은 일반투자자 보유목적 변경 경영권 참여보다 배당 확대 위주로 스튜어디스 코드 활동 활발해질 듯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한 기업에 투자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국내 기업 투자의 기회 요소로 꼽히던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이 활발해지며 개별 종목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5% 톨'까지 완화된 데다, 5% 톨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하도록 하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겸 국민연금 기금위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새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도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

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이런 활동은 이번에 신설된 '일반 투자'로 목적을 변경해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18일 금융정보업에 에프엔가이드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총 313곳. 국민연금의 주주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 중 56곳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자로 바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이 여럿 있다.

이들 기업은 암묵적인 배당 확대를 요구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받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지분 목적을 바꾼 기업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하는 이유다.

투자자들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목적 변경이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됐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민연금이 일반투자자로 바꾸면 해당 종목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같은 방식을 취하며 주주행동을 암시한 KB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들 역시 국민연금의 선례를 의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시 부담이 줄면서 스튜어디스 코드 활동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투자자 배당 요구가 변경됐다. 직접적인 경영권 참여보다는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주주권을 행사하되 배당 확대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기업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나

왔다. 일반투자자 보유 목적을 바꾼 명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지분 목적을 변경한 한 상장사 관계자는 "의견을 요구하며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의식돼 상당수 기업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선에서의 경영 경험이 없는 기금위가 명확한 기준 없는 재량적 판단으로 일반 투자자가 불의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류영재 회장은 "일반투자자 목적을 바꾸는 이유는 배당을 비롯해 여러 가지다. 명시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항공소재 다크호스... 보잉 등서 7345억 수주

### IPO 간담회

항공소재 부품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작년 30억 투자... 본격 매출 기대

자동화생산로봇 통해 생산원가 ↓



이민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항공소재 부품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총액이 7300억원을 넘어섰다. 성장세를 바탕으로 기세를 몰아 테슬라(이억 미실현 기업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주들과 성장의 열매를 나눌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2013년 설립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항공 산업 중에선 유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설립 6년 만에 국내 3개 사업장과 미국에 2개의 자회사를 확보했다. 항공 원소재 공급, 항공기 부품가공·조립, 항공기 창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원소재 공급부터 가공과 조립 등 수직적 통합을 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했다는 평가다.

실적은 매년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81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2018년

289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34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회사 측은 예상 매출액이 올해는 759억원, 내년엔 12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자회사 켄코아 USA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1위 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상위 2% 판매처로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대한항공, 카이(KAI) 등 국내 항공 업체에 원소재 공급을 하는 중이다.

이민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한국의 원소재 유통센터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시아 중국 등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

국 고속철도 차량업체에도 알루미늄 소재 납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항공 기업과도 수주 계약을 따냈다. 중국 3대 항공사로 꼽히는 보잉, 미국 항공사 스피릿과 걸프스트림 등에 협력 업체로 등록됐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7345억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항공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항공사와 수년간 쌓아온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자신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약 30억원을 투자한 설비 덕에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때"라고 밝혔다. 대규모의 수주를 할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정재한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자동화 생산 로봇 공정을 구축해 생산원가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총 157만 2330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3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17일~18일 이틀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0~21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이 받는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3일이며 NH투자증권이 상장주간사를 맡았다.

/송태화 기자

## 대림산업, 1680억 싱가포르 환승역 공사 수주

주룽 이스트~JRL 연결

2026년 12월 준공 예정

대림산업은 18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주룽 이스트 환승역 확장 및 연결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사 금액은 1억9700만 싱가포르 달러로 한화로는 약 1680억원 규모다. 공사 기간은 약 84개월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주룽 이스트 환승역에 신규 개통하는 주룽지구노선(JRL)을 연결하는 공사다. 대림산업은 환승역 확장 및 500m 길이의 고가교 건설 공사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수행한다. 대림은 이번 수주를 위해 일본 업체와 1년간 입찰 경쟁을 벌였으며, 발주처로부터 도심지 혼잡구간에서 더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적합한 공법으로 인정받아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대림산업은 국내외에서 쌓아온 다양한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시공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대림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톰슨 라인 지하철 공사, 투아스 항만 공사 등 대형 SOC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앞선 2013년에는 공사 난이도 높은 마리나 해안 지하고속도로를 준공했다.

/정연우 기자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인기몰이

높은 편의성에 200여개사가 가입

삼성증권은 '온라인 주총장'이 중소 상장법인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200개 가까운 기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은 안건과 관련된 의사 표시를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서비스다. 기존에는 상장사 주주들이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서만 가능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부터 2개 회사가 이미 전자투표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단기간에 200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로 "기업과 주주 모두의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주총 관련 입력사항을 자동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

안 기업의 주총 담당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했던 주총 관련 공시 등의 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온라인 주총장' 시스템으로 자동 전달된다.

또한 온라인 주총장에 가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총이 끝날 때까지 각 기업별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세부적인 기능 실행과 운영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 등 다양한 간편인증을 도입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간편인증을 통해 주주들 뿐 아니라 비주주들도 해당기업의 주총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 삼성증권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온라인 주총장'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송태화 기자

## 대신증권, MTS 해외주식 모의투자 서비스

美, 中 상해A·심천A 주식 대상

대신증권은 18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미국, 중국 등 해외주식을 무료로 투자 체험해 볼 수 있는 'MTS 해외주식 모의투자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신속성과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로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전과 유사한 해외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모의투자 대상은 미국과 중국 상해A, 심천A 주식이며, 투자금액은 사이버머니로 지급된다. 투자국가에 따라 미국 주식은 10만달러(USD), 중국 상해A, 심천A 주식은 60만위안화(CNY)까지 주어진다. 투자기간은 최대 3개월 단위로 연중 투자가 가능하다.



모의투자 참가자들은 20분 지연시세로 매매할 수 있다. 거래일 및 거래시간은 실제 해외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주식은 1주, 상해A, 심천A 주식은 100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신증권 MTS인 사이보스터치나 크레온모바일을 다운받은 후, 초기화면 아래 중간에 위치한 모의투자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손염지 기자 sonumij301@